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대중매체 활용 방안 연구 :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를 중심으로

박종호*, 이현심
서울벤처대학원

A Study on the Use of the Media for Positiv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 Focusing on Depressio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Panic Disorder

Jong-Ho Park*, Hyun-Sim Lee
Seoul Ventur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정신질환태도에 관한 인구통계학적인 차이,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필요성과 매체별로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을 비교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인식차이에서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대, 가족 중 정신질환 치료 경험 유무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서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종교, 월수입,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는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인식개선을 위해 공공의 노력 즉, 대중매체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TV광고, 인터넷, 라디오, 광고탑, 운송수단의 활용을 통한 광고가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차원, 조직적 차원, 개인적 차원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public percep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by suggesting the need for public efforts and proposing specific plans. Demographic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the need of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to improve public perception of mental illness, and the current and expected situation of each advertising medium were analyzed, and plans to improve the advertising were proposed. Three mental illnesses that are possible to recover from through treatment-depressio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OCD), and panic disorder-were examined primarily, and the general public residing in Seoul and the capital area were surveyed. A comparison of the respondents'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attitudes with respect to gender, marital status, age, and family histor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spect to religion, monthly income, or academic background. Most of the respondents recognized that public efforts to improve the public perceptions of mental illness, i.e., efforts through the mass media, were necessary and should be intensified though television, Internet, radio, billboard, and transport advertising.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advertising through mass media for positive public perception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proposes plans to intensify the advertising, focusing on social,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Keywords : Attitude Towards Mental Illness, Depressio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OCD), Panic Disorder, People with Mental Illness

*Corresponding Author : Jong-Ho Park(Seoul Venture Univ.)

Tel: +82-10-5252-3227 email: adkorus@naver.com

Received January 31, 2019

Revised March 5, 2019

Accepted April 5, 2019

Published April 30, 2019

1. 서론

보건복지부와 서울 삼성병원이 2016년도 공동 조사한 정신질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은 약 1,000만 명으로, 평생 유병률이 25.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1년 유병률은 11.9%인 47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문제로 전문의사와 상담을 경험한 수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뿐 아니라 정신질환을 얻은 환자 중 전문 의사를 통한 치료나 상담을 받은 수치는 22.2% 수준이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유병률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정신질환을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해당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진단을 회피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2].

그러나 최근, 혈압과 당뇨 같은 일반 신체 건강상의 문제도 ‘치료’ 나 ‘완치’의 개념보다 ‘관리’ 와 ‘조절’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식의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한 협소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3]. 따라서 이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정신질환의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만 그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4]. 즉, 정신질환은 특정인들에게만 이환되는 특정 질병이 아니며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중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1].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한 대국민적인 홍보와 계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정신질환 환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1, 5-8].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신질환자들에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1, 7- 10]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를 의학적으로 치료해야할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11]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고,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70~80% 이상 수준으로 높아진 것을 2015년 대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과 치료경험이 있는 사람과 이웃을 받아들이거나 지인 직장에 추천한다든지 결혼 상대로 소개시켜준다는 응답은 20%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조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2]. 그럼에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대상들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수준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히 치료를 받아 사회적응과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중매체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중매체를 통한 효과는 다양한 방면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임[13-16]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위한 대국민적인 홍보가 계몽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고[1] 정부주도하의 대중매체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기[17]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현재까지 대중매체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표현·내용 보다는 위험성, 예측 불가능성, 자살, 공격성, 무능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함으로써 편견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는데 일조해왔다[3].

따라서 이제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자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차별과 편견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불안장애 범주에 있는 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를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를 조사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의 필요성을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갖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정신 질환자들이 조기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대중매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이론적 고찰

2.1 정신질환의 개념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은 의학, 사업 분야, 연구자,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라 포함하는 개념적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보건복지부[18]에는 정신질환을 “뇌신경세포 사이의 신경전달물질이 과도하게 많이 또는 적게 분비됨으로써 뇌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문제가 생긴 병으로 이로 인한 개인의 감정, 지각 또는 행동상의 장애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먼저 정신증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증에는 감각이나 사고의 왜곡을 동반하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양극성장애) 등이 있다. 다음으로 신경증의 경우, 생각은 정상적이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강박장애, 전환장애, 신체화장애 등이 있다. 그 중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은 가벼운 정신질환으로써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음[20]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8]. 특히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질환을 개인의 행동, 인격, 주관적 생활,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등에 영향을 주는 정상과 이상사이의 다양한 색의 띠처럼 형성되는 인격장애들로 기술되고 있다[20].

하지만 우울증(Depression)은 오늘날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로 심리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며 그 증상과 강도는 매우 다양하고 사회적, 문화적 형태에 따라 달리 평가되기도 한다[17]. 또한 우울증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은 우울증을 모른 채 지내왔고, 최근에야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다[21].

그리고 강박증은 불안장애의 하나로써 가장 대표적인

증상을 숫자세기, 잦은 손 씻기, 확인하기, 청소하기, 의심하기, 사물 정렬하기 등을 꼽을 수 있다[22].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강박적 사고를 머리에서 지우려고 하거나 막으려고 하며 흔히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어 장애(disability)의 만성화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상당한 손실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강박증은 약물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환자들은 낙인(stigma)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23]. 실제 대규모 WHO 연구에 의하면 강박증 환자들 중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59.5%에 달했다[24].

또한 공황장애는 객관적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극심한 불안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 곧 미쳐버리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빠지게 되는 장애로써 오랜 긴장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공황장애로 발전하지 않아도 공황증상을 경험하는 인구가 연간 30% 정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25].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를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인식수준을 조사하고자 한다.

2.2 정신질환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국내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 간호사, 일반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어졌다. 먼저 한덕용, 이민규[6]는 대학생과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가족과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정신질환의 변화를 살펴보고 70년대에 비해 90년대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개선되었음을 밝혔다. 더불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장기치료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응답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김재훈, 서미경[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분열병, 알코올 중독, 기분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대상으로 느끼는 편견과 차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에서 정신질환으로 간주하는 정도는 급성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 반사회적 인격장애, 기분장애에 순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연구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극복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정신장애와의 구분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김충효[12]는 정신장애인과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인식을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정신보건 인식정도, 장애인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정신장애인 재활을 위한 서비스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는 연구에서 가장 심각한 정신문제로 치매, 알코올 중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문근[26]은 정신장애인과 그들 가족을 대상으로 기능장애에 대한 보호자와 당사자간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는 연구결과에서 장애인 당사자에 비해 보호자가 더욱 기능장애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류세양 외[9]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과 역할수행, 자아존중감, 직무만족 정도에 대한 차이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일반인들이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는 것이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회복을 돕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정부의 노력과 공공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되기도 하였다. 먼저 서미경, 이민규[17]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하고 취약 집단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연구대상을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정신건강 이해력이 낮음을 지적하였고 그 중, 정신분열병에 대한 인식률이 매우 낮음을 밝혔다. 또한 정신건강 이해력이 낮은 집단으로는 남성, 60대 이상, 군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음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이해력이 낮으면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방해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신건강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이를 취약집단에 우선적으

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서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영국의 Defeat Depression¹⁾과 You in Mind²⁾ 호주 의 Community Awareness Program(CAP)³⁾,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Mental Illness Awareness Week⁴⁾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특정 학회나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미경, 이윤경[1]은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 의료보험상태, 결혼 상태에 따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인 편이고, 연령대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수준에서는 중학교 졸업자, 고졸, 대졸 순으로 긍정적임을 밝혔다. 그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대국민적인 홍보와 함께 계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서는 CAMI Scale III(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ity)등의 도구를 적용하여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의 인식, 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많은 연구에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인식과 태도에 대한 현재 수준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음을 확인할

1) 영국에서 1991~1996년까지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신문, TV, 라디오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우울증의 상황, 조기 도움추구의 중요성을 교육한 프로그램이다.

2) 영국의 TV에서 10분짜리 공익광고를 7개 제작하여 시리즈로 방송한 것으로 내용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와 대처행동을 구체적인 예시로 제공하였다. 이 시리즈의 목표는 병식을 향상시키고, 타인과 자신의 문제를 정신질환으로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3) 호주의 CAP는 1995년에 시작된 것으로 TV 광고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4) 미국에서 학교기반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정신보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신의학, 우울증, 자살, 약물 및 알코올 이슈를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 있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적인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20]를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의 노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대중매체수단을 제시하고 현재수준과 희망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방향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인의 정신질환 태도에 대한 인식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정신질환 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대중매체광고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위는 이지영[20]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3명(정신과 의사1명, 사회복지학 교수 1명, 정신치료 상담사 1명)에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이든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가 적합한지를 조언을 구한 후 적합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고 최종적으로 정신질환에 관한 범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Dear(1981)[27]가 개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태도조사(Community Attitudes to the Mentally Ill inventory : 이하 'CAMI' 로 약칭함)에서 사용한 4가지 하위요인을 활용하였다.

CAMI는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자비심(benevolence), 사회생활제한(social restrictiveness), 지역정신보건 개념(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 정신질환자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비인도주의적 감정으로 대하며, 정신질환자들을 하위계급으로 보아 갑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
- (2) 자비심(benevolence) :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온정주의적 견해
- (3) 사회생활 제한(social restrictiveness) :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에 특히 가정에 위협을 주는 존재이기에 입원 중이나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
- (4) 지역정신보건 개념(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 정신질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병이므로 지역사회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견해

CAMI의 문항 수는 40문항으로 각 하위척도 당 10문항씩 구성되어 있고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 제한, 지역정신보건 개념의 순으로 1문항씩 배열되어 총 10개 조를 이룬다. 또한 각 하위척도의 문항들은 각각 5개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의 첫 번째 조는 각 하위척도의 1번 문항들로 A1(부정적)-B1(긍정적)-S1(부정적)-C1(긍정적)과 같은 방식으로 배열되고 문항의 여섯 번째 조는 각 하위척도의 6번 문항들로 A6(긍정적) -B6(부정적)-S6 (긍정적)-C6(부정적)과 같은 방식으로 배열된다.

3.3 설문문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크게 3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현황으로 10가지(성별, 연령대, 직업, 학력, 결혼, 종교, 월수입, 경험, 가족력, 정신과 기왕력)로 구성하였다.

둘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CAMI의 40문항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정도에 따라 '전적으로 동의한다'(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대중매체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수준에서 공

공의 노력에 대한 인식(2문항), 10개의 매체 별 정신질환 정보 개선을 위한 광고노출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 10개의 매체 별 정신질환 정보 개선을 위한 광고노출 희망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10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는 박선영[28]의 연구에 기반하여 매체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10가지(신문광고, 잡지 광고, 인터넷·모바일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포스터 광고, 전광판 광고, 현수막 광고, 대중교통 광고, 광고탑 광고)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중매체의 노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우 많이 노출된다’(1점)부터 ‘매우 부족하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전 설문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 3명(정신과 의사1명, 사회복지학 교수 1명, 정신치료 상담사 1명)으로부터 설문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해가 어렵거나 현실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각 기업체, 관공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628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 28부를 제외하고 총 600부를 본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4.0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신뢰도분석,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사후분석 Scheffe), 대중매체의 현재 노출수준과 요구되는 노출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대응표본 t-test, 그리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의 유의수준은 95%($p < .05$)로 설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분석

분석에 사용된 유효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를 기준으로 30대가 가장 높은 180명(30%)을 차지하였고, 50대 이상이 177명(29.5%), 40대 129명(21.5%), 20대 114명(19%)순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은 남자가 375명(62.5%), 여자는 225명(37.5%)이었으

며 직업은 기술/사무직이 381명(63.5%), 서비스/생산직 123명(20.5%), 기타 90명(16%)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261명(43.5%), 기혼이 339명(56.5%)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종교는 기독교 123명(20.5%), 불교 72명(12%), 천주교 75명(12.5%), 무교 294명(49%), 기타 36명(6%)로 확인되었다. 월수입은 300만 원 미만이 363명(60.5%), 300만 원 이상이 237명(39.5%)이었으며,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은 492명(82%), 전문대졸 이하 75명(12.6%), 대학원 이상 33명(5.5%)으로 조사되었으며 <Table 1>로 요약하였다. 이처럼 인구통계학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연령대, 성별, 결혼상태, 종교, 월수입, 학력을 가진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내용을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정신질환자(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와 접할 기회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거의 접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중인 354명(59%)으로 확인되었고 간혹 접한다는 응답자가 210명(35%), 자주 접한다는 응답자가 36명(6%)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신질환(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을 가진 가족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6명(16%),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04명(84%)로 분석되었다. 또한 응답자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있다'는 응답이 33명(5.5%),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67명(94.5%)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ear)	20~29	114	19
	30~39	180	30
	40~49	129	21.5
	≥ 50	177	29.5
Gender	Male	375	62.5
	Female	225	37.5
Marital status	Single	261	43.5
	Married	339	56.5
Religion	Protestant	123	20.5
	Buddhism	72	12
	Catholic	75	12.5
	None	294	49
	Etc	36	6
Monthly income (in millions KRW)	<300	36	6
	≥ 300	327	54.5
Academic Background	≤ College	75	12.5
	University	492	82
	≥ Graduate school	33	5.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Variable	Mean	SD	Min	Max	Cronbach's α
Authoritarian	2.38	0.79	1.85	3.46	0.73
Benevolence	2.33	0.8	1.99	2.53	0.69
Social Restrictiveness	2.65	0.78	1.73	3.28	0.77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54	0.78	2.23	2.9	0.83
Total	2.48	0.79	1.73	3.46	0.76

4.2 정신질환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분석

정신질환태도에 대한 신뢰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결과를 <Table 2>로 제시하였다.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은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비심과 지역정신보건개념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9]. 본 연구결과에서 정신질환태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권위주의 2.38점, 사회생활제한 2.63점, 자비심 2.33점, 지역정신보건개념 2.54점으로 확인되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심선영[29]의 결과에서는 권위주의 2.90, 사회생활제한 2.86, 자비심 3.98, 지역정신보건개념 3.94점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뢰도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Cronbach's Alpha가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73), 자비심(.69), 사회생활제한(.77), 지역정신보건개념(.83) 으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함에 따라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설문응답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3 정신질환 태도에 관한 차이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신질환태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4.3.1 연령대에 따른 차이분석

연령대에 따른 정신질환 태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One 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p < 0.05$)한 항목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Scheffe분석을 통해 세부 집단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4가지 하위요인 모두 연령대에서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권위주의는

50대 이상의 집단과 20대에서 40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50대 이상 집단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비심, 사회생활 제한은 20대와 30대의 집단이 50대 이상의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정신보건개념에서는 20대와 50대 이상 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인식에서 50대 이상의 집단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2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정신질환태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유의($p < 0.05$)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이 강한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에 있어서 남자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비심과 지역정신보건개념과 같이 긍정적인 태도 역시 남자보다 여자집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에 비해 정신질환태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3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분석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분석결과에서 지역정신보건개념을 제외하고 권위주의($p < 0.05$), 자비심($p < 0.05$)과 사회생활제한($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미혼집단에 비해 기혼 집단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해석되는 장애인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인식과 사회생활 제한의 인식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해석되는 자비심에서도 기혼 집단이 미혼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기혼집단이 미혼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4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분석

다음으로 종교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를 실시한 결과 종교에 따른 응답자간의 정신질환 태도에 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즉, 종교 유무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차이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3.5 월수입에 따른 차이분석

월수입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종교 유무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월수입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4.3.6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학력에 따른 정신질환 태도에 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없음을 확인하였다.

4.3.7 정신과 치료(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를 받은 가족 유무에 따른 차이분석

정신과 치료를 받은 가족의 유무에 따른 응답자들 간에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족력이 있었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인식이 낮고,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Differences of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by Age

Variables	Age(year)	N	Mean	SD	F	p	Scheffé
Authoritarian	20-29(a)	114	2.87	.12	4.965	.008**	a,b,c>d
	30-39(b)	180	2.85	.22			
	40-49(c)	129	2.83	.32			
	50≤(d)	177	2.59	.37			
Benevolence	20-29(a)	114	3.17	.21	2.716	0.03*	a,b>d
	30-39(b)	180	3.13	.25			
	40-49(c)	129	3.03	.30			
	50≤(d)	177	2.92	.38			
Social Restrictiveness	20-29(a)	114	3.00	.10	3.293	0.012*	a,b>d
	30-39(b)	180	2.85	.24			
	40-49(c)	129	2.69	.31			
	50≤(d)	177	2.64	.38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0-29(a)	114	3.03	.15	3.699	.026*	a>d
	30-39(b)	180	2.85	.29			
	40-49(c)	129	2.87	.29			
	50≤(d)	177	2.74	.32			
Total	20-29(a)	114	3.12	.16	4.163	.016*	a,b>d
	30-39(b)	180	3.05	.22			
	40-49(c)	129	2.90	.32			
	50≤(d)	177	2.80	.18			

* p<.05, ** p<.01

Table 4. Differences of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by gender

Variables	Gender	N	Mean	SD	t(p)
Authoritarian	Male	375	2.76	.33	-3.509***
	Female	225	2.91	.24	
Benevolence	Male	375	2.93	.34	-2.879**
	Female	375	3.06	.25	
Social Restrictiveness	Male	225	2.67	.31	-2.664**
	Female	375	2.79	.27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Male	225	2.82	.29	-1.976*
	Female	375	2.87	.25	
Total	Male	375	2.80	.24	-3.481**
	Female	225	2.91	.18	

** p<.01, *** p<.001

Table 5. Differences of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by Marital Status

Variables	Marital status	N	Mean	SD	t(p)
Authoritarian	Single	261	2.84	.27	1.97*
	Married	339	2.79	.33	
Benevolence	Single	261	3.04	.29	2.36*
	Married	339	2.93	.34	
Social Restrictiveness	Single	261	2.77	.28	2.00*
	Married	339	2.68	.31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Single	261	2.86	.26	.78
	Married	339	2.82	.30	
Total	Single	261	2.88	.19	2.123*
	Married	339	2.81	.25	

* p<.05

Table 6. Differences of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by Religion

Variables	Religion	N	Mean	SD	t(p)
Authoritarian	Religious	306	2.79	.33	-.98
	None-Religious	294	2.84	.28	
Benevolence	Religious	306	2.97	.34	-.61
	None-Religious	294	2.99	.29	
Social Restrictiveness	Religious	306	2.70	.32	-.89
	None-Religious	294	2.74	.28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Religious	306	2.82	.30	-1.22
	None-Religious	294	2.87	.26	
Total	Religious	306	2.82	.26	-1.209
	None-Religious	294	2.86	.18	

Table 7. Differences of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by Monthly income(in millions KRW)

Variables	Monthly income	N	Mean	SD	t(p)
Authoritarian	<300	369	2.82	.35	.48
	≥ 300	237	2.80	.25	
Benevolence	<300	369	2.99	.35	.65
	≥ 300	237	2.96	.26	
Social Restrictiveness	<300	369	2.72	.33	.15
	≥ 300	237	2.71	.26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300	369	2.83	.32	-.36
	≥ 300	237	2.85	.22	
Total	<300	369	2.84	.26	.353
	≥ 300	237	2.83	.16	

Table 8. Differences of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by Academic Background

Variables	Academic Background	N	Mean	SD	F	p
Authoritarian	≤ College	75	2.95	.34	2.93	.056
	University	492	2.79	.31		
	≥ Graduate school	33	2.82	.13		
Benevolence	≤ College	75	3.02	.33	.56	.572
	University	492	2.98	.31		
	≥ Graduate school	33	2.90	.30		
Social Restrictiveness	≤ College	75	2.80	.26	1.39	.251
	University	492	2.71	.31		
	≥ Graduate school	33	2.63	.25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 College	75	2.87	.24	.28	.758
	University	492	2.84	.29		
	≥ Graduate school	33	2.80	.22		
Total	≤ College	75	2.91	.22	1.683	.197
	University	492	2.83	.23		
	≥ Graduate school	33	2.79	.16		

Table 9. Differences of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by Family History

Variables	Family History	N	Mean	SD	t(p)
Authoritarian	No	96	2.82	.29	-2.725**
	Yes	504	3.01	.31	
Benevolence	No	96	2.74	.34	-.735**
	Yes	504	2.98	.31	
Social Restrictiveness	No	96	2.68	.28	-.244*
	Yes	504	2.92	.30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No	96	2.81	.30	-7.031***
	Yes	504	3.12	.28	
Total	No	96	2.76	.23	-3.164**
	Yes	504	2.98	.23	

* p<.05, ** p<.01, *** p<.001

Table 10. The Differences in Advertising Need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The Necessity of Public Advertising				
		Mean	SD	t/F	p	
Age(year)	20~29	114	4.114	.631	1.572	.183
	30~39	180	4.250	.628		
	40~49	129	4.395	.660		
	50≤	177	4.288	.645		
Gender	Male	375	4.264	.697	.117	.907
	Female	225	4.253	.572		
Marital status	Single	261	4.207	.667	-1.104	.271
	Married	339	4.311	.638		
Religion	Religious	306	4.294	.669	.755	.451
	None-Religious	294	4.224	.635		
Monthly income (in millions KRW)	<300	369	4.190	.684	-1.778	.077
	>300	237	4.354	.600		
Academic Background	≤College	75	4.200	.645	.244	.784
	University	492	4.262	.663		
	≥Graduate school	33	4.364	.505		
Family History	No	96	4.462	.660	1.139	.274
	Yes	504	4.246	.650		

4.4 대중매체광고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4.4.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필요성에 대한 차이분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광고가 필요하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된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평균을 통해 5점 기준으로 최소 4.1점에서 최대 4.45로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성별, 결혼유무, 연령대, 종교, 월수입, 학력, 가족력에 상관없이 응답자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2 공공의 노력을 위한 매체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 분석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의 노력을 확인하기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관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매체별 현재 노출수준과 희망 노출 순위를 확인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의 유형을 박선영[30]의 연구에 기반하여 10가지(신문 광고, 잡지 광고, 인터넷·모바일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포스터 광고, 전광판 광고, 현수막 광고, 대중교통 광고, 광고탑 광고)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중매체의 노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우 많이 노출된다’(1점)부터 ‘매우 부족하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를 <Table 11>로 제시하였고 광고유형 10가지 모두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수준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Table 11. Analysis of Public Effort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No	Types of Ads.	Advertising exposure level	Mean	SD	t(p)	Current rankings	Expected rankings
1	Newspaper ads.	Current	1.34	.81	-16.13***	4	7
		Expected	3.73	.88			
2	Magazine ads.	Current	1.22	.85	-14.70***	9	9
		Expected	3.57	.89			
3	Internet ads.	Current	1.58	1.00	-17.85***	1	2
		Expected	4.52	.75			
4	TV ads.	Current	1.43	1.01	-21.36***	2	1
		Expected	4.86	.64			
5	Radio ads.	Current	1.3	.88	-18.44***	5	3
		Expected	4.35	.76			
6	Post ads.	Current	1.35	.90	-14.43***	3	8
		Expected	3.68	.90			
7	Billboard ads.	Current	1.25	.87	-13.57***	7	6
		Expected	3.96	.91			
8	Banner ads.	Current	1.24	.88	-11.55***	8	10
		Expected	3.33	.91			
9	Transport ads.	Current	1.27	.91	-18.20***	6	5
		Expected	3.98	.84			
10	Advertising tower ads.	Current	1.18	.86	-12.49***	10	4
		Expected	4.12	1.05			
Total		Current	1.32	.85	-19.44***		
		Expected	4.01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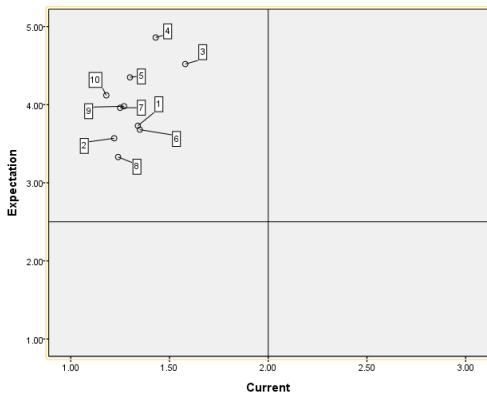


Fig. 1. Summary of IPA Analysis Results by Public Media Type for Public Efforts

인식하는 매체는 인터넷광고, TV 광고, 포스터 광고 순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향후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광고매체는 TV, 인터넷, 라디오, 운송수단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중매체 유형 10가지에 대하여 향후 인식개선을 위해 노출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방법은 4분면으로 구성이 되며 제 1사분면은 유지강화 구간, 제2사분면은 집중노력 구간, 제3사분면은 열등순위 구간, 제4사분면은 과잉지양 구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각 속성에 대한 상대적 현재수준과 요구수준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30]. 대응표본에서 제시한 각 항목의 현재수준과 요구수준을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제2사분면에 위치해 있었으며 모든 유형에서 집중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차별과 편견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4.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에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정신질환 태도가 선행연구[31] 결과에서 제시한 태도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더 권위적이고 사회생활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비심과 지역정신보건 개념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자주 노출되어있는 집단에 비해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할 것이다.

둘째, 정신질환 태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이다. 응답자의 성별, 결혼상태, 연령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가족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종교, 월수입, 학력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자 집단이 남자집단에 비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강미경, 이윤경[1], 서미경, 이민규[17]의 연구의 결과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강미경, 이윤경[1]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이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서미경, 이민규[17]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건강이해력이 높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강미경, 이윤경[1]의 연구는 특정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서미경, 이민규[17]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역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며 서미경, 이민규[17]의 연구 결과와 같이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 집단이 기혼 집단보다 긍정적임을 확인되었고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서미경, 이민규[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신과 치료(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를 받은 가족 유무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가족이 있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인식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지영[19]이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은 가벼운 정신질환으로써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치료를 받은 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인식수준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정신질환자를 위해 공익광고가 필요한지에 대

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응답구분에서 공익광고 필요성에 대한 수준에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평균을 통해 5점 기준으로 최소 4.1점에서 최대 4.45로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성별, 결혼유무, 연령대, 종교, 월수입, 학력, 가족력에 상관없이 응답자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있어서 매체별로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10개 매체 모두 현재 노출되고 있는 수준과 향후 요구되는 노출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모든 매체가 현재보다 향후 더 많은 노출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현재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익광고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인터넷, TV, 포스터, 신문, 라디오 광고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보다 더 많이 노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매체는 TV광고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라디오, 광고탑, 운송수단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IPA 분석을 통해 향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수준을 확인한 결과 모든 매체유형이 제2사분면에 위치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매체를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위한 집중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지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살펴보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을 위한 광고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적절한 치료를 통한 관리와 조절을 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적인 노력(대중매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느끼는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중에서 많은 부분이 언론매체의 보도태도에 근거하기 때문이며 일반인들은 정신질환자를 무서워하기까지 하는[33]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중매체를 통한 개선의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대중매체의 역할을 사회적(Social) 차원, 조직적(Organizational) 차원, 개인적(Individual) 차원을 고려하여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차원은 전 국민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신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공유하는 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조직적 차원을 고려하여 대중매체에서 강화할 내용으로는 자신들이 속한 조직(기업, 학교, 가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질환자가 자신이 겪는 질환이 불치병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완화, 혹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면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정신보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방해한다[32]5).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자는 물론이고 해당 가족들까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3]. 그리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편견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삶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형태 중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를 중심으로 정신질환 태도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 노력, 즉 대중매체의 활용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중매체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을 사회적 차원, 조직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와 세부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방법에서 다변량 분석을 통한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짐으로써 향후 보다 개선된 인식전환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M. K. Kang, Y. K. Lee, "Related Factors to Attitude and Conception of Community toward the Mental Illnes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 291-298,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1.291>
- [2] P. J. Oh.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Factors for Mental Patients.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Ph.D Thesis, 2007.
- [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for the Settlement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2012.
- [4] J. G. Choi. A Study on Treatment and Joint Social Management for Inmates with Mental Diseases : through case analy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5] Y. S. Choi, "Family Views about Social Stigma of Mental illness pati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5, no. 1, pp. 69-89, 1996.
- [6] D. W. Hahn, M. K. Rhee, "Change in Social Representation of Mental Illness: comparing between 1976 and 1995 yea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8, no. 1, pp. 191-206, 2003.
- [7] S. I. Yang, H. U. Im, S. J. Jo, J. P. Myong, G. S. Lee, W. C. Le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Psychological Problems among Middle Managers in Small and Medium-sized Workplac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17, no. 1, pp. 23-33, 2008.
- [8] J. H. Kim, M. K. Seo, "Compar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ypes of mental disorder -using vignett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37, no. 1, pp. 35-64, 2011.
- [9] S. A. Ryu, S. H. Moon, J. S. Choi, B. H. Kim, "Perception of Recovery, Self-esteem, Role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i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4, pp. 434-441, 2012.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2.18.4.434>
- [10] M. H. Kim, "Com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Person Among EMT College Student Before and After Psychiatric Nursing Course Work",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6, no. 1, pp. 5-14, 2002.
- [11]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A Survey Report on the Perception of the Seoul Citizens on the Mental Disabilities in 2017", 2017. Available From: http://seoulmentalhealth.kr/dataroom/report.jsp?cmd=view&test_num=90
- [12] C. H. Kim, "The study of the Namhae Resident's Recognition about Mental disorder and the Mental Health Faciliti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2011, no. -, pp. 199-207, 2011.

5) 국가인권위원회(2008),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

- [13] K. W. Sung, H. C. Choi, "An Analysis on the Role of Mass Media about Volunteer Activity : On Volunteer Activity in Tae-An",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0, no. 3, pp. 165-191, 2008.
- [14] J. C. Yu, "The Role of mass media to vitalization of Sports - for - All",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1, no. -, pp. 63-70, 1993.
- [15] Y. J. Hong, J. S. Hwang, "Social Media vs. Mass Media in the Policy Agenda-setting Process : The Case of the Gwangju Inhwa School Incident(Dogani)",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16, no. 1, pp. 115-151, 2015.
- [16] Y. Bae, "Consuming patterns by type of cultural content and the role of social media", *The Korean Journal of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5, no. 2, pp. 33-65, 2014.
- [17] M. G. Seo, M. K. Rhee, "Mental Health Literacy and Vulnerable Group Analysis of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5, no. 2, pp. 313-334, 2013.
- [18]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Strengthening the Overall Social Response Capabilities for Mental Health: Joint Preparation of Mental Health Measures (2016-2020) with related Ministries / The 78th National Policy Coordination Conference"
- [19] J. Y. Lee. A grounded theory analysis on the caring experience of mother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to teenage children with mental deases - Focusing on recovering relationship with bipolar children-, Graduate School, Human Service Seoul Cyber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20] S. K. Min, *Modern psychiatry*, Seoul: ilchokak, 2002.
- [21] T. J. Go.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ffect of Auricular Reflexology on Middle-aged Women with Depression.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Ph.D Thesis, 2018.
- [22] S. H. Seol. Efficacy of the Korean version of computer-ba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h. D Thesis, 2012.
- [23] L. M. Simonds, S. J. Thorpe, "Attitudes towar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38, no. 6, pp. 331-336. 2003. DOI: <https://doi.org/10.1007/s00127-003-0637-0>
- [24] R. Kohn, S. Saxena, I. Levav, B. Saraceno. "The Treatment Gap in Mental Health Care",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vol. 82, no. 11, pp. 858-866. 2004. Available From: <http://www.who.int/iris/handle/10665/269274>
- [25] J. Y. Park. Study of movement therapy program for panic disorder anxiety relief :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26] M. G. Kim,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IADLs of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Self Report Versus Care Giver's Report and Predictors of Discrepanci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38, no. -, pp. 81-112, 2011.
- [27] Taylor, S. M., & Dear, M. J. "Scaling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Schizophrenia Bulletin*, vol. 7, no. 2, pp. 225-240. 1981.
- [28] S. Y. Park.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Advertising Media Properties on Musical Theatre Satisfaction and Purchase Intentions of the Senior Audience, Graduate School of Arts,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29] S. Y. Shim. An attitud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 for mental patients,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30] S. K. Ah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rvice Marketing Mix through the Application of IPA on Hotel Guests' Repurchase Intention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Ph.D Thesis, 2008.
- [31]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recognition and Eliminate Prejudices of Mental Illness", 2011.
- [3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Report on the Receipt and Handling of Cases Involving Mentally Disabled People", 2008.
- [33] S. Y. Cho, J. M. Kim, "Network TV News Coverage of Mental Illn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4, no. 5, pp. 181-204, 2010.

박 종 호(Jong-Ho Park)

[정회원]



- 2004년 2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비스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7년 2월 ~ 현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사회복지상담, 광고

이 현 심(Hyun-Sim Lee)

[정회원]



- 2006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졸업
- 2010년 2월 :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졸업
- 2012년 3월 ~ 현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및 상담, 가족상담